



웁기를 통해 받는 위로

시부모들이 말했습니다, "넌 부정()해! 네가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져. 그러니 네겐 아무 일도 맡길 수 없다!" 마침내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댁에서 소박 맞은 젊은 새댁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낯설게 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때문에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웁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만일 웁기가 족장 시대나 그 이전에 쓰인 것이라면, 요셉도 고난 중에 이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화 영화 「요셉」의 주제가의 제목이,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보다 그 고난의 이유를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히 웁의 이야기에서 위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온 집안이 회교도인 러슬란과 결혼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시댁으로 들어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6/11	6/12	6/13	6/14	6/15	6/16	6/17
에 1-5	에 5-10	흠 1-3	흠 4-7	흠 8-12	흠 13-17	흠 18-21

그러던 중 친척의 결혼식에 갔다가 이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지금 웁기 번역을 마쳤는데, 번역이 잘 되었는지 한번 읽어봐 줄래?" 한나는 이모님의 말대로 웁기를 읽기로 했습니다.

와~!

한나가 웁기에 나오는 그의 고난에 대해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대로 맞는 말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웁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과 불행을 겪을 수 있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과 웁을 동일시하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슬란은 한번도 한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지만, 가족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한나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웁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은 한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곳곳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 위클리프 국제 연합 웹사이트에서 인용)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또 얼마나 오래 동안 견뎌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또한 우리는 웁의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의 논리에 갇혀서 '의로운 고난받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웁이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웁 23:10).

또한 확실히 믿기는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웁의 말년[나중 삶]에 웁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웁 42:12).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믿음이, 인과법칙으로만 생각하여 내리는 잘못된 정죄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June 11	June 12	June 13	June 14	June 15	June 16	June 17
Ezr 1-5	Ezr 6-10	Job 1-3	Job 4-7	Job 8-12	Job 13-17	Job 18-21



Comfort from the Book of Job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You are unclean!” they told her. “Everything you touch becomes unclean! We refuse to give you any work!” Eventually they threw her out. A young married woman, rejected by her new family, embracing a faith many saw as alien: Hanna was now in danger.

Countless numbers of God’s people have had courage and comfort from reading the Book of Job. If Job had been written in the patriarchal era or even before then, Joseph would have been benefited by Job’s story when he went through suffering. The title song of the cartoon movie *Joseph* says “You [God] know better than I [suffering people of God]”.

Hanna is one of God’s people who have had comfort from God’s word, especially the Book of Job. She is a Christian and married to a man named Ruslan whose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are

all Muslims. She has to live with her parents-in-law according to their custom. We can imagine then what has happened.

When she attended on one of her relatives’ wedding ceremony, she met with her aunt who is a member of the translation team for her language.

“I am part of a team translating the Bible into our mother tongue,” Aunt Rachel told her. “Could you read through a draft of the book of *Job* and let me know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Hanna agreed.

Wow!

As Hanna was reading of the sufferings of Job and the depths of despair that he experienced, she felt the text was speaking into her very own situation. It made a deep impression on her that even a man of God like Job could suffer such pain and misery. Reading about Job and being able to identify with him gave her comfort and hope.

Ruslan had never mistreated Hanna, but as a

result of pressure from his family he informed her that he would be divorcing her. Strengthened by the example of Job, Hanna stood firm in her faith. She continues to share in the life of the Christian community in the town she now calls home. (See more at: <http://www.wycliffe.net/stories/tabid/67/Default.aspx?id=4890#sthash.7bDSrNql.6ajl5rVkd.puf>)

Many people wonder why God has allowed them to suffer and how long they should persevere. We also contain ourselves within the idea of ‘Cause and Effect’, similar to what Job’s friends did. In their mind, there is no such a thing like a ‘righteous sufferer’; they tend to conclude that God is inscrutable. But as Job cried out to the Lord,

“... he knows the way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 NIV)

We can also be sure that we will be better off than before when we have gone through difficulties.

“The LORD blessed the latter part of Job’s life more than the first.” (Job 42:12 NIV)



Week 24 Prayer: Lord, in many places, people are still held victims of superstitious beliefs or unfairly made accusations based on ‘cause-effect’ reasoning only. Please help those in suffering with Your Word so that they and people close to them can humbly seek Your grace and wait for your restoration with patience.